

2016 여름수양회 인생소감 (오윤하)

제목: 자기만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캠퍼스 목자요 성경선생으로

(막8: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1986년 7월, 두 딸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으로 인해 어린 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아버지가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녁에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부모님의 애정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면서 만화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에게 만화영화란 단지 재미있는 것 그 이상이었는 데, 방영시간에 맞춰 티비 앞에 앉는 것이 어린 시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에게 채널권을 빼앗기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반항은 못하고 구석에서 홀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따돌리고 모욕하는 아이들에 대해 미움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특히 외모를 이유로 한 친구가 극심한 괴롭힘 당한 일과, 왕따 문제로 자살한 옆집 언니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누구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성적이 꾸준히 올라 고등학교는 서울외고로 진학하였습니다. 자립적인 태도와 좋은 성적 덕분에 부모님과 선생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 모습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심지어 시험 전날일 때도,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통해 현실을 잊고 내면의 외로움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봤더 애니 또 보고, 읽었던 만화 또 읽느라, 학창시절의 귀중한 시간을 수도없이 허비하였지만, 이것은 뿌리깊은 우상이 되어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취업 안정성만 보고 선택한 전공이라, 학과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점 유지에만 힘쓰고, 나머지는 동아리에 올인했습니다. 제2의 자우림 김윤아와 같은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밴드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보컬이 아니라 세션에 뽑혔습니다. 그래도 악기 연습, 음악 이야기, 공연 준비에 힘든 줄 모르고 매진하였습니다. 마음 맞는 동기와 선후배를 만나서, 그들과 인생을 논하고, 맛집과 흥대와 락페스티벌을 탐방하고, 가끔씩 술에 취해 밤거리를 활보하며, 스스로 열정적인 대학생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고, 학점과 동아리활동,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저를 친구들은 놀라워하며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동아리 인간관계에 차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의 약점과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소울 메이트를 만난 줄로 확신했던 저는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목말라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 내면의 외로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열정 등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내기 때 고순영 목자님을 통해 ubf로 인도받았고, 이후 김명희 목자님과 꾸준히 일대일을 해왔습니다. 동아리와 음악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확신했던 때에는 도무지 성경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계를 절감한 뒤로, 말씀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아리의 한 후배로부터 고백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여자이므로 거절했는데, 그냥 거절하지 않고 나도 너를 좋아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라고 거짓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울무가 되어 후배는 오히려 미련을 갖게 되었고, 저는 틀어진 관계를 억지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몹시 괴로운 중에, 저는 일대일 목자님께 이 일을 알려야겠다고 결단했고, 인생소감의

Part 1 부분을 써서 눈물로 발표하며, 어린 시절의 상처와 외로움, 반복하여 짓던 죄 문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요8:32)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였는데,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저를 도우셨고, 저는 미움과 거짓과 정욕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죄문제가 터치되자, 말씀을 듣는 저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부 4학년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신다면, 제 삶은 이전과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제 삶의 중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몰두했습니다. 이화여대 교목이신 교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물었고, 종교학과 교수님께 신앙간증을 청하여 듣기도 했습니다. 그해 4월, 하나님은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제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를 멀리하고자하는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거칠고 부정적이었던 언어생활을 돌이켰고, 거짓말하던 습관과 정욕의 우물을 끊어내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미움과 불신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캠퍼스 학생들에게 전하며, 동아리 친구와 후배들을 일대일 말씀공부에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1초의 시간, 100원의 물질조차 오직 나만을 위해서 써야 할만큼 이기적이었던 제가, 양들이 늦게 와도 기다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구분하고, 식사와 간식도 사주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섬기던 학생이 떠나가거나, 과거에 인정받던 후배들에게 전도인이라 무시받고 외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어렸던 저는 몹시 낙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캠퍼스 목자인가요, 왜 하필 ubf인가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의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저를 품으시고 한걸음 한걸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2009년 봄수양회에서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딱딱했던 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삼하12: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말씀으로 제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령의 비수가 되어 제가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많은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동아리 후배에게 거짓말하고 진심으로 그를 미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살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심판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덮여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연희센터 옥상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름의 한낮, 사우나를 방불케하는 센터 기도실에서 눈물과 콧물과 땀을 쏟아내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저를 뜨겁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요8:11)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말씀으로 저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온몸이 기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령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짐에서 벗어나 거듭난 영혼이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깊이 체험한 저는 이전에 부르심에 대해 회의하고 방황하던 데에서 돌이켜 주님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가운데 대학원 논문의 흥해를 코앞에 두고서도 2010년 홍콩수양회를 믿음으로 등록하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고 주님을 배우며, 대학원 논문을 감당하여 2011년에 믿음의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초등교사로 교직에 들어셨습니다. 주님은 학교 직장훈련과 캠퍼스 훈련을 통해 저를 어린 영혼들의 목자요 성경선생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김솔희 최은별 캠퍼스 학생들과 김예영 이한나 2세 자매님들을 차례대로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셨으며, 귀한 jbf 교사의

직분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분들을 섬길 때 (암8:11)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목말라하며 방황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요, 저를 소생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게 보내주신 어린 영혼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성경선생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며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가 진실로 영접되었습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보듬고 섬기는 이 직분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과거의 저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신에 사로잡히고 거짓과 음란의 죄에 병들었으며 교만과 자기사랑과 이기심이 뿌리 깊이 내려서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소망을 좇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캠퍼스 시절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면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놀랍도록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올해 6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수많은 영적 유산이 쌓인, 영적 귀족집안의 자제분이신 오요셉 목자님과 복된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목자님의 박사과정 합격을 통해 미국 텍사스에 유학생선교사 가정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미국 이방 땅에 나아가기에 앞서 주님은 저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막8: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계획, 자기만족, 자기사랑은 저에게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첫 번째 가치요, 유일한 삶의 의미로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양들이 들고 날며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말씀의 시온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